

멕시코 정부 「가계경제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 국민 협정」 발표 내용

□ 멕시코 정부, 「가계경제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대국민 협정」 발표

- 멕시코 깔데론 정부는 지난 1월 7일, 가계 및 고용의 안정을 통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개 부문 총 25개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국민 협정을 발표
- 이는 멕시코 정부가 2008년 10월 발표한 '경제성장 및 고용증진 프로그램'에 이어 경기 침체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

□ 대국민 협정 주요내용

1. 고용 및 근로안정 지원

- '한시적 고용 프로그램' 확대 실시
 - 현재 시행중인 '한시적 고용 프로그램'에 대해 멕시코 전체 고용률 수준 (40%)으로 확대 실시 (금년 22억 폐소에 달할 것으로 예상)
- 경영 위기 기업 지원을 통한 근로자 해고 예방
 - 경제 위기로 인해 회사 운영이 곤란한 기업에게 총 20억 폐소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해고 예방

○ 퇴직적립금 인출 제한 완화

- 실직시 퇴직적립금 인출 자격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인출금액도 적립액의 60%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제한 완화

○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혜택 적용 확대

- 금년 1월부터 실직자의 경우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(IMSS)에 26억 폐소 지원

○ National Employment Service의 기능 강화

- 기능교육, 장학금, 기타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 예산 12.5억 폐소를 지원

2. 가계경제 지원

○ 휘발유 가격 동결 및 LPG 가격 인하

- 올해 연말까지 휘발유 가격을 동결하는 한편 LPG 가격은 10% 인하

○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 지원

- 저소득 가구 보유 조명기구 등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 지원(직접지원 또는 용자, 7.5억 폐소 소요)

○ 서민주택 구입 금융지원 확대

- 근로자주택기금(INFONAVIT), 공무원주택기금(FOVISSSTE), 연방주택 공제회(SHF) 등을 통해 서민주택 구입시 총 74억 폐소의 금융지원

3.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

- 산업용 전기 사용료 인하
 - 고압 전기 20%, 중압 전기 17%, 저압 및 상업용 전기 9% 각각 인하하고 1년간 고정요율 적용
- 정부 제품 조달시 중소기업 구매 확대
 - 정부 조달 금액의 최소 20%를 중소기업에 할당
- 중소기업 육성 기금 마련
 - 국영석유회사 협력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50억 페소 규모 기금 설립
- 중소기업 기술자문 지원
 -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멕시코창업기금에 70억 페소를 배정하고 향후 4년간 250억 페소의 금융지원
- 국책은행 금융지원 21% 확대
 - Nafin, BANCOMEXT 등 국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총 1,760억 페소 금융 제공
- 농촌지역 소재 중기 지원
 - 농촌금융공사 및 FIRA를 통해 잔액기준 10% 증가한 840억 페소로 대출 확대
- 개발금융기관 금융지원 확대
 - 올해 직간접금융 등 전년대비 26% 증가한 총 1,250억 페소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

4. 경쟁력 및 고용확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

- 국가사회간접자본 개발 계획 가속화
 - 인프라 건설을 위해 금년 중 총 5,700억 달러 규모 예산 집행
- 국영기업 투자 확대
 - PEMEX(국영석유공사)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170억 페소 및 기타 정부기업 인프라 투자를 위한 140억 페소 등 총 310억 달러 투자
- 인프라 프로젝트 용자 및 보증 확대
 - BANOBTRAS 및 국가인프라기금을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총 650억 페소의 용자 및 보증 실시

5. 공공지출 투명성, 효율성 및 적시성 제고

- 신규 제정된 정부회계법 시행을 통해 투명성 제고
-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지출 적기 집행
- 정부 예산 적기 집행
 - 지방정부 및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구매사업 지출 허가
 - 2009년 정부예산지출에 대한 사용내역 관보게재
- 2009년 정부 예산 집행 차질 없이 시행
 - 원유 수출가격 변동에 따른 예산 부족분은 자금조달로 확보하는 등 금년 예산집행 차질 없이 시행

□ 추진효과

- 멕시코 재무부는 이번 국민협정 추진을 위해 600억 페소의 예산이 필요하며, 세금 인하 등으로 총 450억 페소의 가계 소득 증가, 중소기업 자생능력 확대,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르는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언급

□ 각계반응

- 멕시코 제조업협회는 동 협정 내용이 일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언급하였으며, TELMEX 등 멕시코 최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Carlos Slim 회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
-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, 특히 산업생산에 많이 사용되는 디젤유는 인하되지 않는 등 실질적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

[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]